

베네수엘라

2002년도 경제성장에 장애요인 많아

2001년 중 베네수엘라의 경제는 건설경기 호황 및 민간부문의 투자심리 회복에 힘입어 다른 중남미 국가들에 비해서는 양호한 수준인 2.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여전히 높은 실업률, 낮은 국제유가로 인한 정부 재정 수입 감소 등의 우려요인이 남아 있어, 베네수엘라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일련의 개혁법안 일괄통과에 대해 기업과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도 베네수엘라 정부의 경제운용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개혁법안에 대한 반발 고조

빈곤층의 절대적 지지에 힘입어 1999년 2월 대통령직에 취임한 차베스 대통령은 과감한 경제개혁을 통한 빈부격차 해소 및 사회주의적 국가 건설을 기치로 내걸고 개혁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정책에도 불구하고 집권 이후 빈곤계층

이 오히려 증가, 전체 국민의 70%가 빈민층으로 전락하고 범죄율도 줄어들지 않는 등 별다른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01년 11월 차베스 대통령은 의회로부터 한시적으로 부여받은 신속협상권(fast track authority)을 근거로 개별산업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49개 개혁법안을 일괄적으로 통과시켰다. 민간부문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차베스 대통령의 이러한 일방적인 법률 개정엔 반대하여 베네수엘라 전국경제인연합(Fedecamaras) 및 노동자연맹(CTV)은 지난 12월 10일 12시간 동안의 시한부 파업을 감행하였다. 이번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총 4억 8,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재계와 노동계는 49개 개혁법안에 대한 재개정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더욱 강도 높은 파업을 실시할 것을 경고하고 있으나, 차베스 대통령도 동 개혁법안의 실시 강행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향

후 추가적인 충돌이 우려된다.

이번 개혁법안에서 이해 당사자간에 가장 큰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분야는 크게 3가지이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토지개혁법안으로, 동 법안은 유휴지로 방치된 농장 등 사유재산을 정부가 임의로 압류하여 토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소작농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¹⁾ 정부는 토지개혁 관련 법안을 통해 현행 총 인구의 1%가 전체 경작가능 토지의 60%를 보유하고 있는 토지소유 불균형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재계는 동 법안이 개인소유권을 침해함은 물론 투자여건도 악화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토지개혁법안 이외에 가난한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은행 여신지원 관련 법률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은행법은 소규모 농업을 영위하며 담보 부족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없는 농민에게 여신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동 법률개정을 통해 은행들의 영세농 지원한도가 기존 총여신의 8%에서 15% 이상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이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개정 석유사업법에서는 탐사, 채굴 및 저장과 관련된 사업에 신규 진출하는 경우 반드시 국영 석유공사(PDVSA)가 경영권을 확보하는 내

용과 함께 로열티를 인상²⁾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석유사업 관련 로열티 수입 증대를 통해 재정수입이 확충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동 법안에 의하면 민간 기업이 석유정제업을 영위할 수는 있으나, 국내시장 공급가격 결정권은 정부가 갖게 되었다. 이에 대해 재계는 PDVSA의 경영권 보유 조항으로 인해 향후 외국인 투자가 감소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정부수입 감소전망

금번 유훈부문 파업과 국제 원유가의 하락 등으로 인해 원유수출이 총수출의 80%, GDP의 23%, 재정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베네수엘라 정부로서는 2002년 재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예상되고 있다. 베네수엘라 정부의 2002년도 예산안은 배럴당 가격 18.5달러 및 일간 생산량 300만 배럴을 기준으로 책정되었으며, 정부지출은 2001년도에 비해 12.5% 증가한 26조 4,000억 볼리바르 규모로 편성되었다. 이로 인해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금년의 GDP대비 2%보다 증가한 GDP대비 3%로 예상되고 있다.

재정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수입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 PDVSA이다. PDVSA는 2002년 중 3조 4,000억 볼리바르(45억 달러 상당)의 배당금을 정부에 지급할 계획인데, 이는 일산 300만 배럴

1) 동 법안은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소작농들에게 국영농업기구(IAN : the National Agricultural Institute)를 통해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유휴지로 판명되어 정부로 소유권이 귀속된 개인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2) 원유생산 관련 로열티는 이번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기존 16.6%에서 20~30%로 인상되었음. 산유국 평균 로열티 부과율은 7.1%이며, 베네수엘라를 포함한 OPEC 회원국의 부과율은 14.7%임. 이외에 원유생산 관련 기업에 대한 소득세는 기존 67.7%에서 58%로 경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의 생산량 및 배럴당 가격 18.5달러를 가정한 것이다. 2001년 10월까지 베네수엘라산 원유의 평균 수출단가는 배럴당 21.5달러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11월 들어 베네수엘라산 원유에 대한 국제가격이 배럴당 16달러 수준으로 하락하였고, 산유국들의 감산이 합의되지 않는 한 당분간 국제 원유가의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2002년도 예산안에서 원유 생산량은 일산 300만 배럴로 가정하였지만, 현재 석유쿼터를 준수할 경우 일산 267만 배럴로 축소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원유관련 수입이 정부의 계획에 미달할 가능성이 커져 향후 재정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PDVSA는 지속적 원유증산을 위해 향후 5년 간 35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2002년 중 8억 달러 규모의 자산담보부 채권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금번 개혁법안의 실시로 인해 향후 합작사 설립시 경영권 확보를 위해 약 20억 달러가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 원유시장의 침체 및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중남미 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PDVSA는 채권발행 및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부문 위축 예상

작년 2/4분기까지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했던 제조업 생산이 9월부터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철강산업의 경우 최근 미국과 멕시코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됨으로써 조업에 타격을 받고 있다. 보호무역주의로 초래된 수출부진에다 내수시장 포화까지 겹쳐 생산량 감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외에도 시멘트, 알루미늄 및 원유관련 부산물의 생산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호황을 보이고 있는 분야는 비료 부문에 국한된 실정이다.

최근 베네수엘라 정부는 2002년 초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전력부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기 절약 및 효율적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전력생산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Guri 수력발전소³⁾의 발전이 가뭄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가 우기임을 감안할 때, 아직 제한송전을 고려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건기가 시작되는 3월 이후 최악의 전력난을 맞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제한송전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현재의 파업사태 및 차베스 대통령의 사회주의적 성향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향후 투자유보는 물론 기존 투자금의 회수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낮은 국제유가 수준 지속, 재정수지 악화 및 차베스 대통령의 지지도 하락⁴⁾ 등이 맞물려 2002년 베네수엘라의 경제성장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蔡祥珍】

3) 베네수엘라 동 발전소를 통해 전체 전력수요의 70%를 충당하고 있음.

4) 차베스 대통령 집권 당시 지지율은 85%를 기록한 바 있음. 하지만 그가 공약한 빈곤 및 범죄퇴치와 관련하여 별다른 성과가 없자 최근 지지율은 50% 내외로 하락한 상황임.